

샌디의 영향: 1) Santa > Sandy, 2) 정유제품 가격 1주일간 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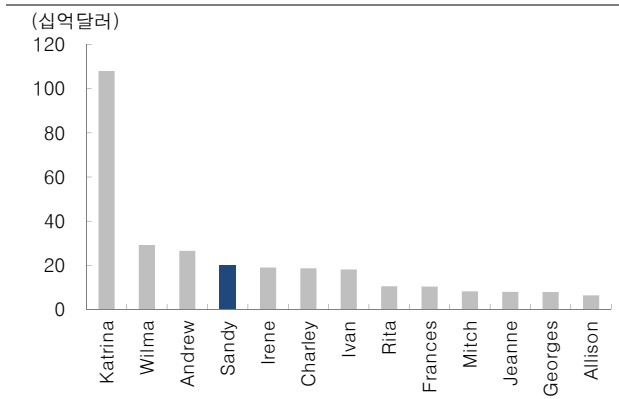
Analyst 이제훈 (769-2985) alee2007@daishin.com

미국 내수: Sandy 보다는 Santa 에 무게

Santa vs. San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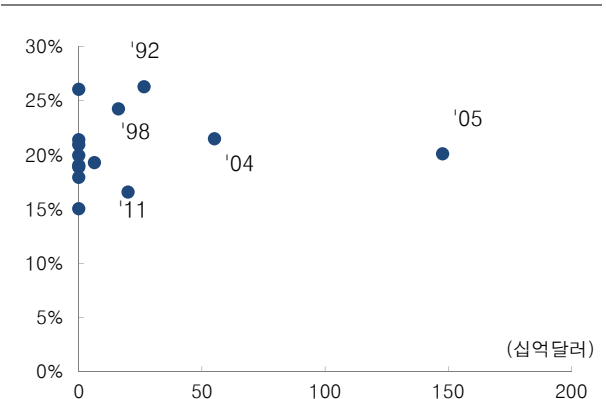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10월 30일 미국 동북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Sandy)의 예상 피해 규모는 200~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이는 역사적으로 2~3위의 허리케인 피해 규모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연말 미국 소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허리케인의 피해가 미국 연말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는 거의 없던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약간의 기저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에서 보는 것 처럼 과거 10대 허리케인의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2월 미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두 자리수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그림 1. 허리케인별 피해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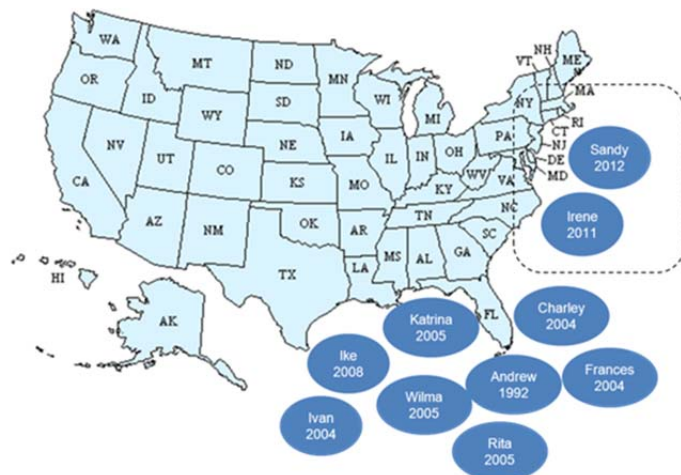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피해규모(X축)와 12월 소매판매증가율(Y축, MoM)



자료: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 Census, 대신증권

그림 3. 허리케인별 상륙지역



자료: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샌디의 정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미국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허리케인의 대부분이 정유 및 원유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남부를 타격했다는 면에서 미국의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는 곧 정유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샌디의 경우 그 피해 지역 측면에서 2005년 루이지애나에 상륙한 카트리나와 같은 허리케인 보다는 2011년 발생한 아이린(Irene)과 더 유사하다. 대부분 정제 및 원유시설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샌디의 영향도 정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는 그 영향의 정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유제품 가격은 1주일내에 정점, 1개월 이후 예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

결론적으로 정유 제품의 가격은 그 상승폭은 과거 허리케인 보다는 작겠으나 지금부터 1주일내에 정점에 이르겠고, 약 한 달 이후 예전 가격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정유시설과 전력시설의 피해로 나누어 점검하도록 한다.

샌디의 정유시설에 대한 영향

초기 폐쇄된 시설 중 44.4%는 정상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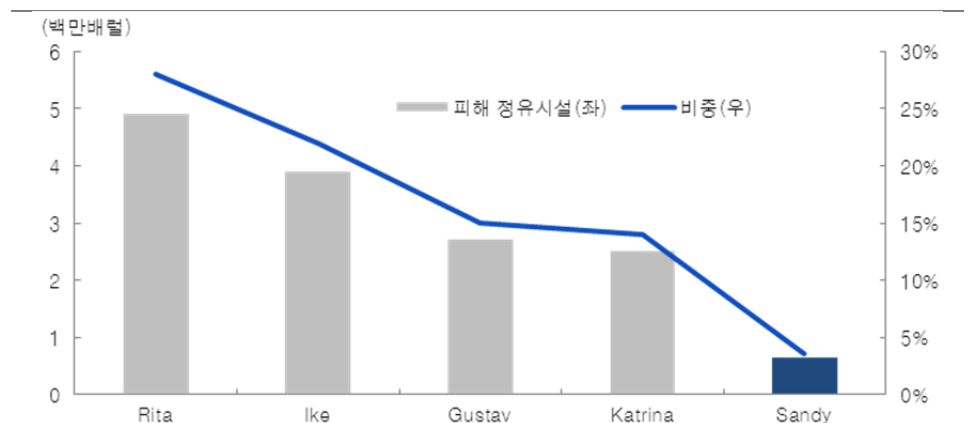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지진은 예상하기 불가능 했던 반면, 샌디의 경우 많은 사전 경고로 초기에 정지되었던 정제 시설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언론과 DOE(Department of Energy)에 따르면 샌디의 상륙 직전과 직후에는 일일 생산능력 기준 약 117만 배럴의 정유시설이 가동을 멈추었으나 ISER(Infrastructure Security and Energy Restoration)의 최종 보고서(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월 31일 오전 9시)에 따르면 이중 44.4%가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

표 1. 정유시설 가동 현황

정유사	위치	생산능력(배럴/일)	현상황
Hess	NJ	70,000	폐쇄
Monroe Energy	PA	185,000	정상회복
PBF	DE	182,200	가동을 하라
PBF	NJ	160,000	가동을 하라
Philadelphia Energy Solutions	PA	335,000	정상회복
Phillips 66's	NJ	238,000	폐쇄
총 계		650,200	

자료: DO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허리케인별 미국 정유 시설의 피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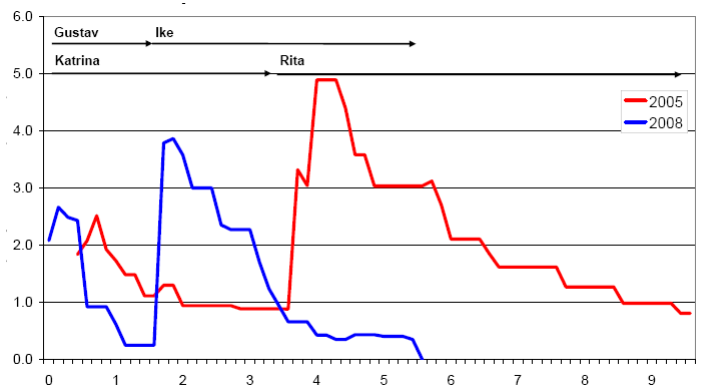


자료: ISER, 언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비정상 시설은 미국 정제 시설의 3.5% 수준, 1개월 뒤 회복될 것

따라서 현재 가동이 불가하거나 가동률이 하락한 시설은 생산능력 기준 약 65만 배럴/일에 달하고 이는 미국 정제 능력의 3.5%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림 4는 2005년 이후 대규모 허리케인이 정제시설에 미친 영향을 보는 것인데 남부를 강타한 여타 허리케인 대비 샌디의 영향은 비교적 적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5는 과거 허리케인에 의해 미국 정제시설이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보인다. 2005년 발생한 카트리나의 경우 회복 시간은 2달, 2008년 발생한 Gustav와 Ike의 경우 약 3주가 걸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허리케인별 정유시설 회복기간(X축: 백만배럴/일, Y축: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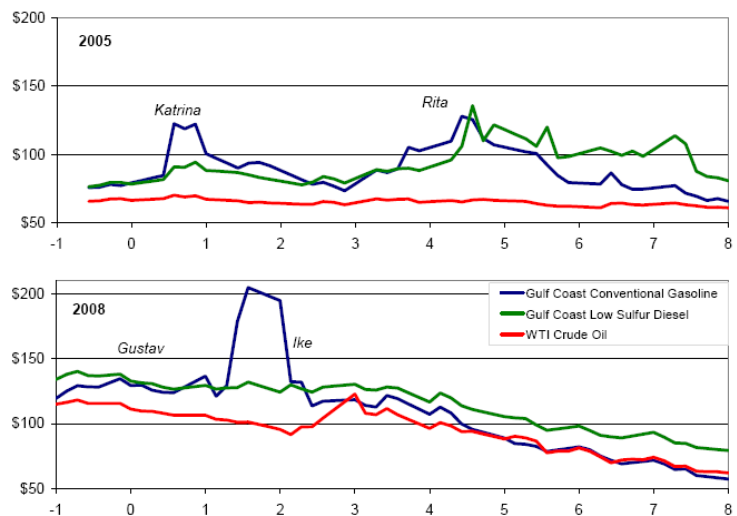


자료: ISE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유제품 가격은 향후 1주일간 상승, 1개월 이내에 예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 높아

그림 6은 과거 허리케인이 발생한 이후 목격된 대표적 정유 제품인 가솔린과 디젤의 가격 추이이다. 2008년은 리먼사태에 의해 모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기간으로 현재와의 비교가 적합하지는 않다. 2005년의 경우 카트리나와 리타가 연속으로 미국 남부를 타격하면서 가솔린과 디젤의 가격 상승은 시설 회복 기간과 유사하게 약 2달간 예전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다. 결론적으로 피해 규모나 복구 상황을 감안하면 샌디의 영향에 의한 정유제품 가격 상승은 그 폭은 과거 대비 적으나 향후 1주일간 정점을 기록하고 1달 미만에 예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원유 및 정유제품 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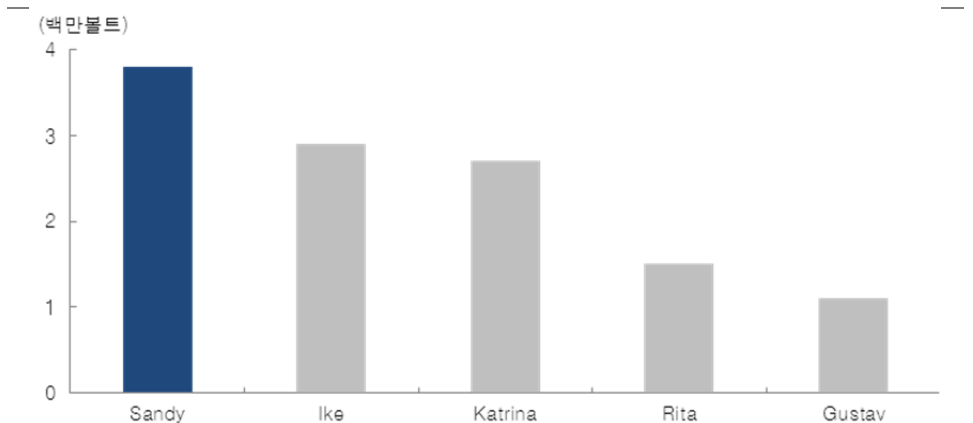
자료: ISE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샌디의 전력시설에 대한 영향

현재 불능화된 전력시설은
390만 볼트

미국에 상륙하는 허리케인의 산업시설에 대한 영향은 정제시설과 더불어 전력시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거 여타 대규모 허리케인과 다르게 샌디의 경우 미국 동북부에 상륙하였기 때문에 정제시설보다는 발전소 시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은 과거 허리케인에 의한 전력 공급 차질 규모를 보인다. 언론과 ISER 보고서에 의하면 샌디의 영향으로 초기에 불능화가 되었던 발전소의 생산능력은 800만 볼트에 달했으나 현재 그 숫자는 약 390만 볼트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7. 허리케인별 최대 전력 공급 차질



자료: ISER, 언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원자력 발전소 피해 및 복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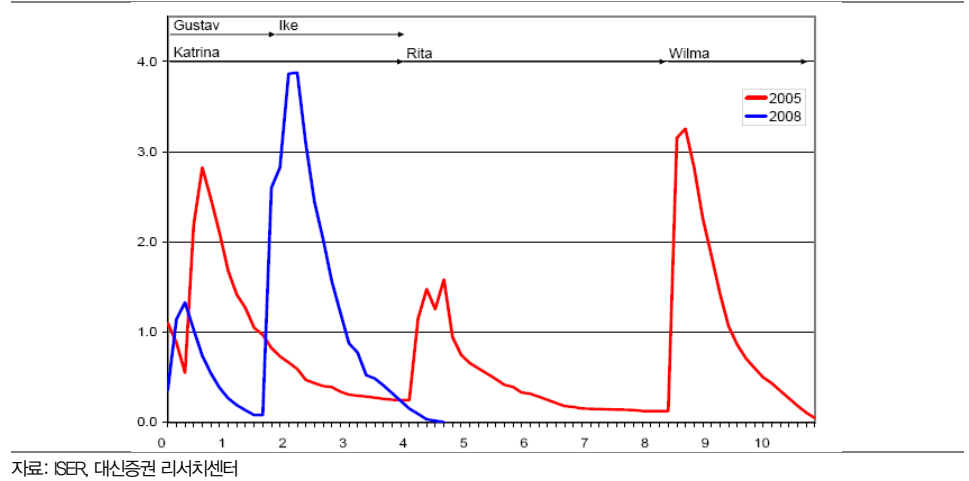
기업	시설	생산능력	위치	현재 상황
Dominion Resources	Millstone Unit 3	1,233	Connecticut	80% 복구
PSEG Nuclear	Salem Unit 1	1,174	New Jersey	Offline
Entergy Nuclear	Indian Point Unit	1,040	New York	Offline
Constellation Energy	Nine Mile Point Unit 1	630	New York	Offline
Constellation Energy	Nine Mile Point Unit 2	1,143	New York	100% 복구
Exelon Corp.	Limerick Unit 1	1,130	Pennsylvania	100% 복구
Exelon Corp.	Limerick Unit 2	1,134	Pennsylvania	30% 복구
Entergy Nuclear	Vermont Yankee Unit 1	620	Vermont	100% 복구
불능생산능력	N/A	3,884	N/A	N/A

자료: ISER, 언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전력 시설 복구도 약 1개월
이 소요될 것

그림 8을 과거 허리케인에 의해 불능화되었던 전력 시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을 주별로 나타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거의 모든 허리케인의 경우에 전력 시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거의 정확히 4주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마치 하나의 정기적 사이클을 보는 듯 한데 이러한 사실 역시 샌디의 영향에 의한 정유 제품 가격의 상승기를 약 1달로 예상하는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그림 8. 허리케인별 전력시설 회복기간(X축: 백만명, Y축: 주)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